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환경 비교분석 및 격차해소 방안¹⁾

이윤진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에 온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여성으로, 정착 과정에서 혼인,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여성은 경제적, 정서·심리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가정의 “물질적” 양육환경과 비교하면, 아동결핍지수는 평균 4.49개로 일반가정 1.92개보다 훨씬 높았으며(결핍이 크다는 의미) 박탈지수 역시, 평균 11.66개로 일반가정 8.59개보다 높았다(박탈이 크다는 의미). 이로써 일반가정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열악한 양육환경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수급받는 한부모 가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수급 한부모 탈북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치과 치료비 지원, 주거사다리 이동정책에서 우선권 부여,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성장발달, 양육환경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일반 가정 및 일반가정 내에서도 취약계층(수급 가구,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문항들을 일부 차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15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²⁾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승인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의 신뢰도가 높다. 본 설문조사의 주요한 문항은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기본 영역인 8개 영역(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안전을 기반으로 한 총 53개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본고는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2)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 5년 주기로 실시하며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 3년 주기로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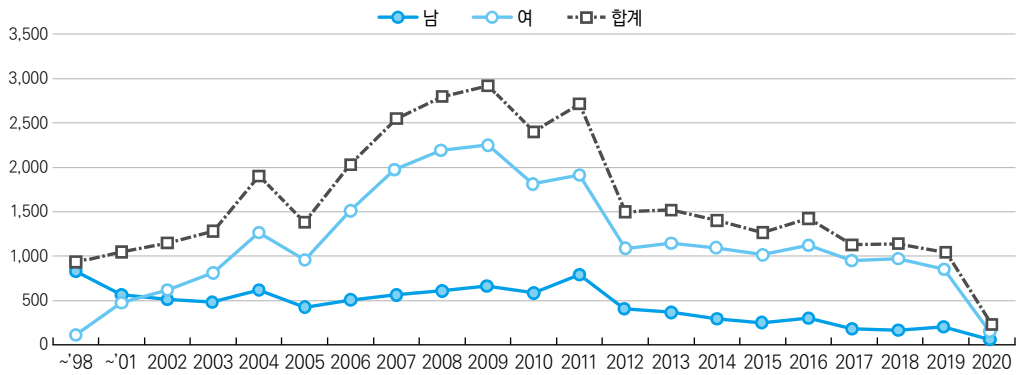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

가. 통계 본 북한이탈주민 특성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33,752명으로 2009년 연간 3,000명 가까이 입국하는 등 증가하였다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여 연간 약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일부, 2020: 9). 2020년 입국인원은 229명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탈북 이동 경로 국가의 국경폐쇄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통일부, 2020: 9). 2021년 9월까지 잠정 입국자수는 48명으로 2020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체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은 72.0%로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 수가 남성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단위: 명



[그림 1] 연도별 입국 추세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2021.12.3인출\)](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2021.12.3인출))

[표 1]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활동 참가율	탈북민	56.5	54.1	56.9	55.3	59.4	57.9	61.2	64.8	62.1
	일반국민	61.6	61.8	62.1	63.2	63.0	63.4	63.5	63.4	63.3
	차이	△5.1	△7.7	△5.2	△7.9	△3.6	△5.5	△2.3	1.4	△1.2
고용률	탈북민	49.7	50.0	51.4	51.7	54.6	55.0	56.9	60.4	58.2
	일반국민	59.8	59.9	60.2	61.1	60.9	61.2	61.2	60.9	61.4
	차이	△10.1	△9.9	△8.8	△9.4	△6.3	△6.2	△4.3	△0.5	△3.3
살업률	탈북민	12.1	7.5	9.7	6.4	4.8	5.1	7.0	6.9	6.3
	일반국민	3.0	3.0	3.0	3.3	3.4	3.6	3.6	4.0	3.0
	차이	9.1	4.5	6.7	3.1	1.4	1.5	3.4	2.9	3.3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탈북민	121.3	137.7	141.4	145.2	154.6	162.9	178.7	189.9	204.7
	일반국민	203.3	210.9	218.9	224.0	230.4	237.2	243.0	255.8	264.3
	차이	△82.0	△73.2	△77.5	△78.8	△75.8	△74.3	△64.3	△65.9	△59.6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6.

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남한의 일반국민과의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며 특히, 실업률(일반국민 3.0%, 탈북민 6.3%)과 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일반국민 264.3만원, 탈북민 204.7만원)의 차이는 크다.

2011~2019년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체의 수급률과 비교하면, 일반국민에 비해 탈북민의 수급율이 약 7배가 높아 여전히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 본 설문조사 참여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 일반가정과 비교

1) 주양육자 특성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양부모 가구(53.0%)가 한부모 가구(47.0%)보다 약간 더 많으나,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한 거주기간은 입국 후, 5년이 지난 사례가 82.8%로 월등히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은 비수급(51.7%)과 받는 수급(48.3%) 가구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일반가정에 비해 수급가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을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약 59%로 다

〈표 2〉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탈북민	46.7	40.8	35.0	32.3	25.3	24.4	24.4	23.8	23.8
한국전체	2.95	2.79	2.69	2.64	3.2	3.2	3.1	3.4	3.6

주: 2014년 이후 조사의 수치는 모집단 크기만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011, 2012년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13년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14년 이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임.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7.

〈표 3〉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구분	비율(명)	구분	비율(명)
전체	100.0(151)	전체	100.0(151)
입국연도		남한 거주기간	
2010년 이전	25.2(38)	5년 이하	17.2(26)
2010~2014년	39.1(59)	5년 초과	82.8(125)
2015년 이후	35.8(54)	수급여부	
가구유형		수급	48.3(73)
양부모	53.0(80)	비수급	51.7(78)
한부모	47.0(71)	우울여부	
거주지역		우울하지 않음	46.4(70)
수도권	66.9(101)	우울함	53.6(81)
비수도권	33.1(50)		

주: 1) 우울여부 기준은 우울수준*20/11이 16점 이상이면 '우울함'으로, 16점 미만이면 '우울하지 않음'으로 분류함.

2) 우울수준은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의 총점임.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p.19-29.

수를 차지하며 중위소득 50~100% 미만인 30.5%로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4.3%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17.2%), 실업자(구직중)(6.6%), 무급가족종사자(5.3%) 순으로 나왔으나 그 비율은 적었다.

근로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근로가능하다”는 응답이 85.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능력 없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대부분은 일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 기준으로, 고졸(재학 포함)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된 특성으로 추정된 높은 비율의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50% 미만), 높은 비율의 수급 가구, 높은 비율의 한부모 가구가 본 설문조사에서 거의 그대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우울 여부는 우울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본 설문조사), 영유아 가정이 있는 일반가정(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 가정이 있는 일반 한부모 가정(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은 다음 <표 4>와 같다. 본 설문조사와 비교 분석 대상인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850명이고,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240명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 가정(850명)의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90.7%, 학력은 전문대와 대학재학 이상이 각각 30.9%였다. 약 99%가 장애는 없으며 약 85%가 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약 19%, 임시직 임금근로자 약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 순이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50~100% 미만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중위소득 100~150% 미만 24%, 중위소득 50% 미만 약 18%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40명)의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약 81%이며, 학력은 고등재학/졸업이 약 55%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재학/졸업, 대학재학/졸업이상 순이었다. 약 97%가 장애는 없으며 비수도권 거주자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가 약 66%를 차지하며 미혼이 약 19%, 사별 약 8%로 뒤를 이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50~100% 미만이 약 44%, 중위소득 50% 미만이 32% 등으로 중위소득 100%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3개 집단의 공통점은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며, 장애는 없으며 근로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수도권에 더 많이 거주한다면, 나머지 2개 가정은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은 북한이탈주민 가정, 50~100% 미만은 일반가정이 더 많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2) 영유아 자녀 특성

출생순위는 첫째가 74.2%로 가장 많았고, 둘째 21.9%, 셋째 4%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은 영아와 유아의 비율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한 결과, 영아가 45.0%, 유아가 55.0%로 표집되었다. 출생국가는 남한이 95.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임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98.7%가 장애가 없이 건강한 아이들이었다. 자녀의 아버지 국적은 남한 24.5%, 북한 20.5%, 중국 7.3% 순이었다. “가족내 아버지 없음”은 설문조사의 응답기준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원’이어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아버지(71%)로 처리했다.

〈표 4〉 3개 조사 응답자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북한 이탈주민 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한부모 가족실태 조사		북한이탈 주민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한부모 가족실태 조사
성별				혼인상태			
남성	0.7	9.3	18.8	유배우	53.0	87.6	0.0
여성	99.3	90.7	81.3	사별	0.7	2.2	8.3
교육수준				이혼	22.5	9.3	66.3
무학	1.3	0.0	0.4	별거	4.6	0.6	6.7
초등재학/졸업	4.6	0.2	0.8	미혼	19.2	0.0	18.8
중등재학/졸업	11.3	3.5	7.5	무응답	0.0	0.2	0.0
고등재학/졸업	44.4	28.1	5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전문대재학/졸업	8.6	30.9	21.7	상용직 임금근로자	17.2	18.7	-
대학재학/졸업이상	29.8	30.9	14.6	임시직 임금근로자	4.0	6.6	-
무응답	0.0	6.2	0.0	일용직 임금근로자	3.3	4.7	-
장애유무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3.3	0.5	-
장애있음	0.0	1.1	2.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	0.5	-
장애없음	100.0	98.9	97.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6	4.0	-
근로능력				무급가족종사자	5.3	3.9	-
근로가능	85.4	84.8	-	실업자	6.6	2.5	-
단순근로가능	4.6	6.0	-	비경제활동인구	54.3	58.7	-
단순근로미약자	2.6	1.4	-	가구소득			
근로능력 없음	7.3	7.8	-	중위소득 50% 미만	58.9	17.5	31.5
거주지역				중위소득 50-100% 미만	30.5	50.7	43.8
수도권	66.9	30.9	34.6	중위소득 100-150% 미만	4.0	24.4	18.5
비수도권	33.1	69.1	65.4	중위소득 150% 이상	4.0	7.3	5.8
자녀연령				무응답	2.6	0.1	0.4
영아	45.0	42.4	-	계	100.0	100.0	100.0
유아	55.0	57.6	-		(151)	(850)	(240)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21.

〈표 5〉 본 설문조사의 영유아 자녀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151)	전체	100.0(151)
출생순위		자녀연령	
첫째아	74.2(112)	영아	45.0(68)
둘째아	21.9(33)	유아	55.0(83)
셋째아	4.0(6)	아버지 출생국가	
자녀출생국가		북한	20.5(31)
북한	0.7(1)	중국	7.3(11)
중국	3.3(5)	남한	24.5(37)
남한	95.4(144)	기타	0.7(1)
기타	0.7(1)	가족내 아버지 없음	47.0(71)
자녀장애유무		장애없음	98.7(149)5
장애있음	1.3(2)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p.69-70.

3. 일반가정과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물질적 환경 실태

가. 결핍실태 및 결핍지수

1) 결핍실태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결핍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15개 문항(UNICEF 아동결핍지수 14개 문항, 연구진 추가 1개 문항)을 조사하였다(류정희 외, 2019: 520, 525). UNICEF 아동결핍지수 14개

문항에 대해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비율을 결핍지수로 산출한 결과(류정희 외, 2019: 522),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경우 82.8%가 결핍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영유아의 39.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루 세끼 섭취에 대한 결핍(결핍문항 1)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육류 및 생선 섭취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 자녀만의 책상이 잘 드는 충분한 공간 결핍(결핍문항 9)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 내에 인터넷 연결(결핍문항 10), 두 켄레 신발 소유(결핍문항 12), 인스턴트 식품 주 3회 이상 섭취(결핍문항 추가)는

〈표 6〉 자녀의 결핍실태-문항별

단위: %

결핍문항	북한이탈 가정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chi^2(df)$
1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31.8	3.3	148.382(1)***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25.2	10.0	27.362(1)***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35.8	11.3	60.254(1)***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26.5	10.6	28.692(1)***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38.4	22.9	16.246(1)***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74.2	34.9	81.666(1)***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29.8	13.2	26.798(1)***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30.5	11.1	40.134(1)***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책상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49.0	13.2	108.807(1)***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3	6.7	6.694(1)**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25.2	6.7	50.866(1)***
12 적어도 두 켄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3.3	6.9	2.823(1)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51.0	22.8	51.536(1)***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27.2	18.1	6.672(1)*
결핍지수 ¹⁾	82.8	39.9	94.893(1)***
추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24.5	50.6	35.055(1)***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이운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181.

일반가정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면과 계상 보고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스마트폰 및 컴퓨터 기기를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북한이탈주민 가정 4.0%, 일반 가정 0.4%로 나왔는데 결핍문항 10의 결과를 (이윤진·박창현·김문정, 2021: 145) 이와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겠다. 인스턴트 식품 주 3회 이상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들 가정의 낮은 소비력과 관련된 결과로 추측된다.

2) 결핍지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핍지수는 평균 약 4.5개(결핍된 항목 수)로 일반가정 영유아의 약

1.9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서, 결핍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의 결핍항목 수를 비교한 결과 수급/비수급가구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결핍항목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수급가구 또는 비수급가구가 하더라도 탈북 가정의 결핍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수급 가구가 결핍항목 수가 5.42개로 가장 많아서 이들 4개 가구유형 중에서 가장 취약한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 또는 양부모 가구끼리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

〈표 7〉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핍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단위: 개, (명)			
조사구분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4.49	3.07	(151)
아동종합실태조사	1.92	2.74	(850)
<i>t</i>		9.624***	

주: 1)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 중 '아니오'라고 응답한 문항 개수의 합임.

2)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01$.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187.

〈표 8〉 수급여부별 자녀의 결핍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단위: 개, (명)			
수급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5.42	3.18	(73)
아동종합실태조사	4.24	3.76	(130)
<i>t</i>	2.389*		
비수급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3.62	2.72	(78)
아동종합실태조사	1.50	2.28	(720)
<i>t</i>	6.632***		

주: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 중 '아니오'라고 응답한 문항 개수의 합임.

* $p < .05$, *** $p < .001$.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188.

보다 결핍 항목수가 더 많았다. 요컨대, 탈북 한부모 가구(5.46개)가 일반 한부모 가구(3.01개)보다 결핍항목수가 더 많으며 양부모 가구내에서도 동일하였다. 이들 4개 가구들에서 탈북 한부모 가구가 가장 열악하고 탈북 양부모 가구도 일반 한부모 가구보다 결핍항목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탈북 가정의 취약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박탈실태 및 박탈지수

1) 박탈실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일반가정과의 비교를 위하여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영역의 31개 물질적, 사회적 박탈항목을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결과, 저축(미래대비) 영역에서 3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29.8~59.6%가 결핍되어 가장 열악한 편이었고,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는 4개 중 3개 항목에 대해서 30.5~42.4%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주택과 주거환경에서는 '가구 원 수와 연령에 적절한 방 사용'과 '옥탑방이나 지하가 아닌 지상 거주'에 대해서 각각 39.1%, 32.5%로 나와 열악한 편이었다. 의료 및 건강 영역에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통계 분석 결과, '주 1회 신선한 과일 섭취', '도보 10분 거리의 대중교통 확보', '필요한 의약품 구입 가능',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 '집세가 밀려 이사함' 5개

〈표 9〉 가구유형별 자녀의 결핍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한부모가구	3.89	3.51	(198)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5.46	3.13	(71)
아동종합실태조사	3.01	3.41	(127)
<i>t</i>	5.008***		
양부모가구	1.92	2.64	(803)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3.63	2.77	(80)
아동종합실태조사	1.73	2.56	(723)
<i>t</i>	6.235***		

단위: 개, (명)

주: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 중 '아니오'라고 응답한 문항 개수의 합임.

*** $p < .001$.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188.

〈표 10〉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박탈실태 비교

단위: %

	물질적 결핍(박탈) 문항	북한이탈 가정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chi^2(df)$
식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13.9	5.9	12.531(1)**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11.3	6.8	3.638(1)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15.2	3.5	35.018(1)***
의생활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19.9	3.2	66.520(1)***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43.0	6.6	160.380(1)***

물질적 결핍(박탈) 문항		북한이탈 가정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chi^2(df)$	
주택 및 주거 환경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7.9	2.9	9.026(1)**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39.1	5.8	147.794(1)***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9.9	7.2	1.389(1)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32.5	5.5	107.174(1)***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9.3	2.9	13.723(1)**
의료 및 건강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받을 수)있다	33.1	9.1	66.970(1)***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11.9	4.6	12.837(1)**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할 수) 있다	6.6	4.0	2.098(1)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37.1	21.9	16.169(1)***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17.2	12.5	2.525(1)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40.4	16.2	46.997(1)***
사회적 지지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20.5	5.3	42.423(1)***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52.3	24.2	49.653(1)***
저축	19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59.6	28.8	54.554(1)***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29.8	21.4	5.147(1)*
교육	21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31.1	6.5	85.170(1)***
	22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42.4	11.6	88.863(1)***
	23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30.5	7.4	70.218(1)***
	2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15.9	5.9	18.773(1)***
경제적 어려움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24.5	4.2	77.908(1)***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25.8	6.8	52.917(1)***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9.9	4.9	5.952(1)*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5.2	4.0	30.122(1)***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15.9	3.9	34.450(1)***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8.2	6.0	0.779(1)
	31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10.0	2.0	18.363(1)***

주: 1)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31개의 하위문항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경제적 영역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 항목은 '비해당' 제외하고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p.189-190.

항목을 제외한 29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박탈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항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지수는³⁾ 약 11.7개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일반가

정의 약 8.6개보다 높았다. 즉,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가정보다 물질적,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와 일반 수급가구의 박탈지수는 각각 약 13.5점, 약 13.1점으로 두

〈표 1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지수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조사구분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11.66	4.72	(151)
아동종합실태조사	8.59	3.80	(850)
<i>t</i>	7.542***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p.190-191.

〈표 12〉 수급여부별 북한이탈주민가정/일반가정 박탈지수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수급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13.26	4.90	(319)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13.53	4.31	(73)
아동종합실태조사	13.11	5.21	(130)
<i>t</i>	0.594		
비수급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7.99	3.06	(922)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9.90	4.43	(78)
아동종합실태조사	7.78	2.79	(720)
<i>t</i>	4.137***		

주: 박탈지수는 31개 문항 중 박탈된 문항(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개수를 합산한 수치임.
*** $p < .001$.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192.

〈표 13〉 가구유형별 북한이탈주민가정/일반가정 박탈지수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한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11.89	4.61	(438)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13.13	4.39	(71)
아동종합실태조사	11.20	4.60	(127)
<i>t</i>	2.878**		
양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8.36	3.64	(803)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10.35	4.65	(80)
아동종합실태조사	8.14	3.45	(723)
<i>t</i>	4.133***		

주: 박탈지수는 31개 문항 중 박탈된 문항(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개수를 합산한 수치임.
** $p < .01$, *** $p < .001$.

자료: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19. p.192.

3) 박탈지수는 31개 문항 중 박탈된 문항(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개수를 합산한 수치임.

집단 모두 높아 차이는 없었다. 비수급가구인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박탈지수가 약 9.9점으로 일반가정 약 7.8점보다 높아서 박탈 지수가 높았다.

한부모, 양부모가구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가정보다 결핍과 박탈지수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가구끼리 비교에서도 탈북 수급가구가 더 열악했으며 한부모 가구 내에서도 탈북 한부모 가구가 일반 한부모 가구보다 더 열악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는 수급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제 영역에서 가장 열악했다. 탈북 수급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들이 환경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수급을 받고 있는 탈북 한부모 가구의 양육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박탈상태에서도 나왔듯이(문항 12) 치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 가정의 영유아가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의 비율이 1.4%였다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12.5%(이윤진 외, 2021: 75) 무려 9배 가량 많았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라도 치과 치료의 부담이 크다. 건강한 영구치를 갖기 위해서는 유치 관리부터가 중요

하므로 영유아기부터 치과치료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이다. 이 사업의 대상을 영유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 현행 지원정책 중 “(3-2 정책과제)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⁴⁾에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착 5년 기간 동안의 자산, 거주주택, 가구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거사다리 이동 과정에 있어 이들 가정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핍에서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항목에서나, 박탈상태의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항목에서 일반가구와 비교해서 훨씬 취약하였다. 남한 정착 초기에 배정받는 주거지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국민임대아파트 46㎡(전용면적 13평)를 배정받는다(1인 가구 기준 40㎡). 이후 추가로 입국한 경우 평수 상향이 가능하도록 2021년도에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입국자에 한하고 있다(한국 LH공사 담당자 면담, 2021년 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출산뿐 아니라, 북한 또는 중국 출생 자녀가 중도입국하면서 가구원수가 증가하면서 주거공간이 협소해진다. 가구원수가 증가했다고 무조건 주거 면적을 늘려 배정하는 것은 다른 취약계층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들 가정의 높은 취약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래행복통장을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목적을 확대, 운영할 것을 제

4) 관계부처 합동(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26

안한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의 지 및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골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저축분에 대해 동일금액을 매월 정부와 매월 매칭 지원(최대 월 50만원, 최장 4년)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입국자만 가입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통장제도를 근로소득은 없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수급 한부모 탈북가정도 가입할 수 있게 해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이 일반가정보다 높지만(이윤진 외, 2021: 118), 교육 영역과 저축 영역에서 박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실과 미래의 괴리가 크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도 영유아 자녀의 월평균 교육·보육비⁵⁾로 약 23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21: 223). 월 교육·보육비의 일정액에 대해 정부와 탈북 가정이 매월 매칭해서 저축하며 통장명의로는 자녀이름으로 한다. 정부가 분담하는 금액과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들 가정에게 맞춤형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현행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 중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4-3)을 여가부, 고용부, 통일부가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은 2018년 334명, 2019년 301명, 2020년 20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⁶⁾. 정부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 촘촘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탈북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⁷⁾.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상담사와 1:1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처음 도입해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밀착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란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하나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사회 신문,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 등)에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추가로 내는 비용과 함께 학습지, 학원비, 문화센터 활동비 등의 총액임.

6) 관계부처 합동(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 38

7) 관계부처 합동(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40